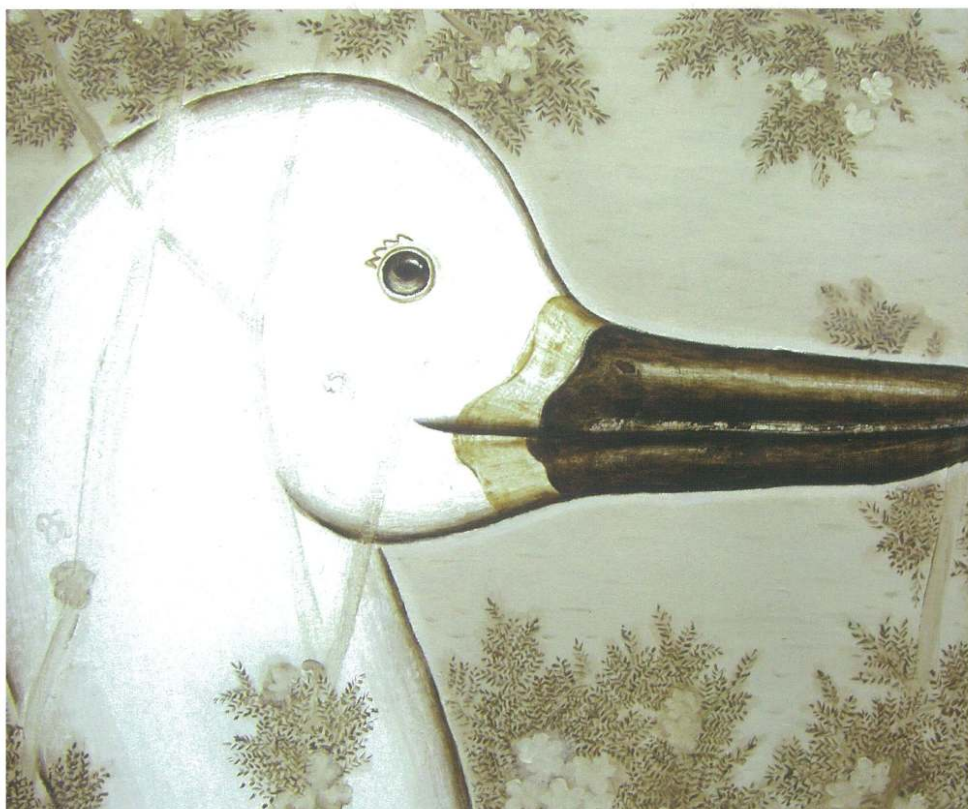


사하문학

2010. 제10호



사하문인협회

특 집 Ⅱ

원 로 대 담

- 그대 영혼에 꽃불을 지피며, 시인 박송죽 / 글 노옥분
- 따스한 카리스마, 시인 김영준 / 글 정미선

그대 영혼에 꽃불을 지피며, 시인 박송죽

글 : 노 옥 분

내 시의 태반은 우주의 무게를 지닌 어머니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모성적인 뿌리이고 싶다. 절망과 좌절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강한 인내로 보듬어 껴안고 한 생애를 꽃불처럼 지피는 모성적 사랑으로 독자와 교감 할 수 있는 서로의 뜨거운 가슴과 가슴으로 심장의 박동 소리로 귀착되어 합일점에 도달하는 눈뜨는 세상 아름다움이고 싶다. 비록 생의 아린 반추와도 같은 눈물의 꽃과 같은 내 시일지라도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빛을 발하는 모든 예술의 원초적인 본질로 접목되는 심령의 깊은 샘에서 퍼 올린 순수하고 가장 맑고 정직한 영혼의 노래가 되고 싶다. 그러나 흰 머리 휘날리며 무거운 나이를 이고 추위 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참 자유로운 정직하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서 삶의 오션지에 입춘 트랙에 새음 트는 푸르름이고 싶다.

운애(雲涯) 박송죽 선생님의 열다섯 번째 시집 『그대 영혼에 꽃불을 지피며』의 서문이다. 1958년 첫 시집 『보랏빛 의상』을 상재한 후, 고 김춘수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의 천료를 통하여 등단했으니 올해로 시력(詩歷)도 52년째가 된다. 15권의 시집과 2권의 수필집.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하는 동안 쉽 없는 열정으로 시의 꽃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글은 그 사람의 목소리이고 영혼이다. 시인은 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은 선율 고운 생명의 뜨거움이다/ 목숨 심지에 불을 댕겨/ 스스로 타 들어가/ 연소되고 산화 되어/ 봄빛으로 싹눈 틔우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모듬드리 다 내어 주고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의 협주곡이다.”

〈시집 -그대 영혼에 꽃불을 지피며- ‘사랑은’ 중에서〉

선생님께서서는 문단 꽃내기나 다름없는 나를 어디서나 잘 챙겨 주신다. 큰언니처럼 때론 친절어머니의 따뜻한 망토 속처럼 평화로운 언덕이 되어 주신다. 문인산우회의 승학산 등반이 있던 10월의 어느 날, 소녀처럼 고운 자태로 등반에 동참하신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문학의 본질에 대하여 여쭙었다. “문학이 인간 내면



의 깊은 자아와 관련된다고 볼 때 한 편의 서정시는 진리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삶의 진실, 다시 말하면 일치의 진실과 일관성의 진실을 독자에게 옮겨주는 미적 진정성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시인은 그 시대를 위하여 예언자적인 입장에 서야하고 또한 그 시대의 산소량을 측정하는 측정기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지요?” 미사 때마다 신 앞에 몸을 낮춘 시인의 겸허한 모습을 종종 만난다. “신앙은 곧 나를 나답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가꾸어 갈 수 있기에 신앙은 마음의 거울이자 자기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구애를 받지 않고 순수 그대로 영혼의 선결작업을 할 수 있는 종교시는 마치 고백소에서 고해를 하는 것과 같이 나를 비우는 작업이기에 순결한 내가 되기 위한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시는 인간의 영혼 속에서 타는 불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픈 독자의 영혼에 위안이 되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요.” 시인의 말에는 기교나 가식이 없다. 연륜을 자랑삼지 않으니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도 않는다. 사뿐사뿐 내딛는 발걸음은 나보다 더 가볍다. 부러움이다. 나도 딱 저랬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서는 천생 예인이시다. 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선지의 여백에 그려내는 그림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다. 도자기에 새긴 멋진 글씨며, 조각도로 일군 바가지 공예 또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급의 감각을 자랑한다. “나는 때때로 꿈을 꾸듯이 환

상적인 응답 없는 공상에 젖어 아마추어보다도 더 미숙한 형체와 색채로 표현할 수 없는 서툰 화필로나마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의 현장과도 같이 숨 쉬며 살아가는 실존의 진솔한 삶의 모습으로 저마다에게 주어진 시간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모두가 일생이라는 화폭에 수채화와도 같은 그림 한 장 남기고 이 지상을 떠나는 거라고...” 일생을 수채화와도 같다고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지상을 떠날 때를 위하여 버릴 것은 버려야겠다고 정리하다 먼지 속에 버려진 습작하던 오래된 그림 뭉치를 발견하여” 2008년에는 시와 그림, 그리고 가족사진과 더불어 글발 50년의 활동들을 『수채화 속에 그림 한 폭』이라는 이름으로 시화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문학의 장인정신으로 앞으로의 여생은 풀꽃처럼 소박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는 선생님께서는, 50대에 겪었던 지독한 교통사고의 상처와 오랜 기간 남편 간병의 고통 속에서도 한순간도 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눈동자처럼 자신을 지켜주신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눈 뜨는 영혼의 새벽』 『생의 한가운데로 스치는 불의 바람이 되어』 『내 삶의 예정표는 당신만이 아시나니』 『참으로 소중한 당신이 계시기에』 등의 신앙시집을 탄생시켰다.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큰아들은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낸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둘째아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제가 되었으니 어머니의 희생과 극기가 맺은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은빛 출렁이는 역새발 길을 나란히 걸으며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양분이며,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기에 피하지 말

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포용력과 긍정적인 사고가 칠순을 넘긴 연세에도 소녀처럼 곱고 맑은 영혼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

후배문인들께 한 말씀해달라고 했다. “저는 문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선배는 선배대로 좋은 삶의 표양을 보여주고, 후배들은 장인 정신과 각고의 노력으로 격조 높은 필력을 가다듬어 성실한 시 창작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젊어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후배들은 성급하게 시작詩作을 끝내려고 합니다. 시인이라는 칭호는 자기 신분을 격상시키고 꿈을 내주는 그런 걸치레가 아닙니다. 또한 시인이라고 누구나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죽는 날까지 고통의 산고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시인의 길임을 명심하고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부산여류문인협회와 부산여성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또한 부산문학상을 비롯하여 많은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한국문단의 거목이시다. 그 중에서도 “1991년도에 수상한 세계시인상은 세계 시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세계 시인협회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시인을 뽑아 세계시인상을 수여하고 있지요. 제 시집 『열쇠를 찾습니다』에 수록된 메모리 북 ‘추억 수첩’이 수상작으로 뽑혀 수상하게 되었답니다. 제게는 과분한 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송죽 시인에게에는 난초의 청초함이 있다. 여린 듯 약해 보이지만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고고한 기품이 서려 있다. “삶 자체가 문학”이

라고 말하고, “내 삶이 기도가 되고 시가 되고 문학이 되어 이 지상을
떠나는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이고 싶다고 말한다.
시인의 말에선 시의 향내가 묻어난다. 깊은 듯 맑은 눈매엔 문학을
향한 열정이 응결지다. 50여년 혼불로 일궈낸 시인의 글밭에는 알록
달록 다양한 열매들이 참 곱게도 영글었다.

